**품위로부터의 해방**

컴퓨터공학과 2013210061 채윤병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재수를 다짐했던 아이가 결국엔 실패했을 때,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의 노력은 길게 가지 않을 때 우리는 패배감을 볼 수 있다. 그만큼 우리는 변화를 승리의 충분조건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노인에게 있어서 변화는 관대하지않다. B 부인의 아들들처럼 젊은 사람들은 노인의 변화를 예삿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한다. 노년이 돼서야 바라던 대로 살았던 B 부인은 가장 가까운 아들에게 조차 응원을 받지 못한다. 노년에는 관습이 있다. 노인들은 이 관습에 도전하는 것도 두렵고 이 관습만큼 하지 못할까 또 두렵다. 브레히트가 표현한 관습적인 품위를 기대하는 아들들을 보면 노년의 두려움은 한층 더 매서워진다.

나의 노년은 변화의 기대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B 부인처럼 행동해도 자유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아마 힘들 것이다. 최대 효율을 계속 기대하고 성장만이 살 길인 사회 분위기속에서 노년의 주름진 손은 보탤 데가 없다. 뒤를 돌아볼 새가 없으니 뒤쳐진 사람은 낙오될 뿐이다. 낙오된 혼자가 되고 나서도 자유가 오지 않는 노년의 주름은 날로 깊어져 갈 지도 모른다.

하지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목숨을 건 동전던지기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것을 잃을 뻔할 때 우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본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지만 노인은 별거 아닐 수도 있는 행운의 동전이다. 동전이 22년을 거슬러 1958년에 왔던 것처럼 모든 노년에는 노년만의 의미가 있다. 우린 그러한 소중함을 동전을 주머니 속에 넣어 다른 동전과 다를 바 없이 만드는 것처럼 소홀히 여기면 안된다.

나의 노년은 당장 보탤 데가 없어도 더 이상의 기대를 받지 못한다 해도 좋다. B 부인처럼 짧게나마 내 의미를 스스로 만들며 관습을 비껴나기위해 노력하고 싶다. 아마 그런 것들은 사소한 것들일 것이다. 소설 속에서 영화를 보는 것, 새로 사귄 구두수선공의 작업장에 찾아가는 것 등이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말이다.

인생은 길든 짧든 끝이 있다. 저물어가는 태양이 노을을 만들듯이, 끝날 무렵엔 의미가 있다. 노을이 스스로 의미를 만들듯이 나도 B 부인처럼 스스로의 인생을 끊임없이 변화하며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싶다.